

#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제와 발전 방향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김 태 이  
(부산외국어대학교)

###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2. 이론적 배경
  - 2.1 선행연구
  - 2.2 다문화교육과정 배경 연구
3. 연구 방법
  - 3.1 연구 참여자
  - 3.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4. 연구결과
  - 4.1 사전-사후 인터뷰 연구 결과
  - 4.2 수업참관 연구 결과
5. 논의 및 제언

<Abstract>

**Kim Tae Wi.** 2019. 1. 25. **A Study on the Actual and Future Direction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s,**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3. 1-20. Due to market opening and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 Korean society is gradually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e Ministry of Education. We announced the advancement plan, strengthened education for multicultural

students, and carried out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r all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centering on elementary school and to present future direction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how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teachers are carrying out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t the school site and examined whether their teaching goals and educational contents convey multicultural values in light of the conceptual model of multi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The research method involved five instructor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ducted pre - interviews, class materials review, class observation and post - interviews after class observation. All the researchers introduced elementary school children 's culture of their native countries, and class focused on the culture of customs such as traditional costumes and food.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needs to consider diversity in terms of target students and culture. It is rather difficult to cultivate empathy and social ability in the global situation by one-time class of first-time stu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develop it.(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words :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Multicultural Education Specialists, Multicultural Curriculum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맞고 있다. 결

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증가<sup>1)</sup>로 다문화 구성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주의가 강조되던 한국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 노동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그리고 농촌지역 여성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쳐 259,698명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32,826명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민의 국적은 중국(재중동포 포함) 38.8%, 베트남 26.9%, 일본 8.5%의 분포를 보여 이상의 3개국 출신자가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8년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학생의 총 숫자는 122,212명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학생이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국내출생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를 모두 포함한다.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2016년에 99,186명에서 2017년 109,387명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 대비 2018년 122,212명으로 12,825명이 증가 11.7%가 증가하였다. 특히 다문화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2018)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2.2%를 넘어섰다. 초·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전체 학생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sup>2)</sup>하고 있어 향후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

1) 외국인주민이란 외국인 중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국내체류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행정자치부의 지역사회의 자원관리 필요성에 의해 통용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176만 4,66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사회통합과 보도자료, “2017년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결과 발표.” 2017.11.15,

2) 2017년 전체 학생 수는 약 573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6만 명 감소하였다. 반면에 다문화 학생은 2017년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10만 9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표 1 다문화 학생 수(2012~2018)>

연도	전체	초	중	고	기타
2012	46,954	33,740	9,627	3,409	178
2013	55,780	39,360	11,280	4,858	282
2014	67,806	48,225	12,506	6,734	341
2015	82,536	60,162	13,827	8,146	401
2016	99,186	73,932	15,080	9,816	318
2017	109,387	82,733	15,945	10,334	375
2018	122,212	93,027	18,068	106,88	429

국내에 학령기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작금에 다문화가정 자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지원 등이 요구된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어 가고 있기에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주민과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과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선주민과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이해와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 1.2 연구 목적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국내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1.9%로 10년 전보다 7.5배 증가하였고, 2016년에 비해서는 10.3% 증가하였다. 2017년 다문화 학생 중 초등학생의 비중은 75.7%, 중학생 14.6%, 고등학생 9.7%이다.

가정의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까지 다양하게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선주민과 이들의 사회적 통합이 절실하며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이해교육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부재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다문화□탈북 학생·중도입국자녀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초·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재를 파악했다. 향후 다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다문화 이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한다. 또한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가의 교육목표와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교과내용이 사회통합과 상호이해를 위하여 다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다문화 이해교육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 배경

### 2.1 선행연구 고찰

2006년부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이후에는, 그 중심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있다는 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sup>3)</sup> 결혼이민자가 국내의 교육시스템에서 어떤 교육적 역할을

---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은 「재외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의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의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제2조의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하는 것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다문화 이해교육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역할을 이중 언어강사와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언어강사는 2009년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양성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중 언어강사의 교육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두 번째 교육적인 역할은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2012)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초점집단면접(FGI)에서 다문화 전문 인력의 개념, 역할과 다문화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를 “결혼 이민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제공 및 편견의 해소, 상호 이해를 높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법무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양성하는 것이 올바른 형태라고 제안하였다.

권오현(2012)은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의 역할을 국민과 국내 학생들을 위한 역할에 집중하여 설명하면서,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는 문화 차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구성원별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더불어 국내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사 스스로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끊임없이 교수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이 점차 증가하자 교육부는 2012년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학생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

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sup>4)</sup>. 이에 따라 일반학생 대상 상호 이해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외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역할놀이,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다문화 이해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영라와 방기혁(2015)은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이 국내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배려와 협력, 편견해소, 다문화 감수성, 양성평등, 장애이해와 같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다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적용했다. 그 결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다문화 감수성’ 및 ‘양성 평등의 이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sup>5)</sup>에 의하면, 다문화 수용성의 지수는 2011년 평균51.2점에서 2015년 평균54.0점으로 다문화 인식이 향상되었다.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인 ‘다누리 배움터’를 개설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이해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제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들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 2.2 다문화교육과정 배경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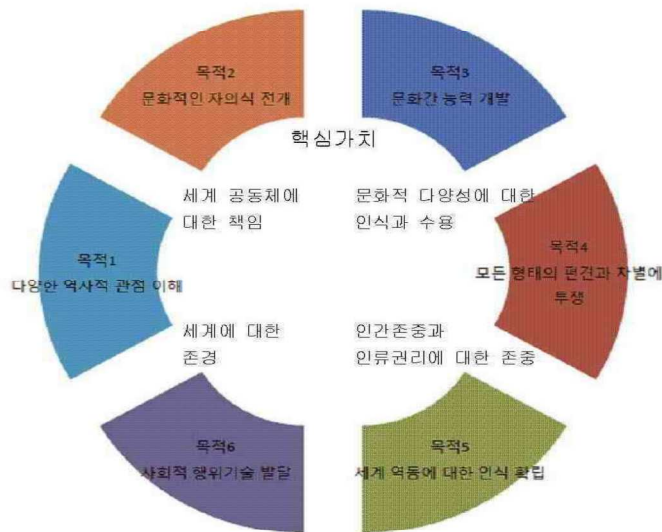
---

4)교육부, "교육혁신다문화교육. <http://www.moe.go.kr/web/board/view.do?bbsId=343&boardSeq=28307&mode=view>, (accessed Aug, 5, 2016).

5) 다문화 공생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2015).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에는 이주민의 소수문화가 주류문화에 적응되어야 하는 동화주의적 관점을 취하였다. 이후,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면서 소수자와 이민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sup>6)</sup>. 초기 다문화 교육과정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관심을 두고 이민 자녀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류문화와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최근 다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이민자 문화를 강점으로 바라보는 변혁적인 입장을 취하는 방향으로 달라짐에 따라서 다문화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교육과정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지만 다문화 교육과정 모형을 대표하고 있는 Bennett의 이론을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Bennett의 다문화교육과정 모형은 핵심 가치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분석하는 틀로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림 1 베네트의 포괄적인 다문화교육과정의 개념적 모델>

6) J. A. Banks, "다문화에 대한 소개교육 (4판)" 워싱턴 대학교, 2008.

Bennett(2007)가 제시한 다문화 교육과정의 핵심은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지구환경 존중 및 문화 다양성 존중, 보편적 인권 존중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런 핵심 가치에 바탕을 두고서 다음과 같은 6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목표는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주류집단에서 고정된 가치관을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다.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 집단의 영웅과 역사적 사건이나 음식 그리고 축제와 같은 피상적인 주제를 배제해야 한다. 둘째 목표인 문화적 민감성 함양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뜻한다. 셋째 목표는 상호 문화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감하고 몸짓, 표정 등의 상징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넷째 목표는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의 모든 형태에서 편견과 차별에 대해 투쟁하는 것이다. 때문에 백인 대 유색인, 노동자 대 관리자 등과 같은 단순 이분법적 논리로서 접근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다섯째 목표인 세계적인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배양은 지구에서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결정은 전 지구적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는데 있다. 끝으로 여섯째 목표는 사회적 행위 능력 향상이다. 이것은 세계시민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며, 사회변혁을 위해서 행동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소개한 Bennett의 모형에서 다문화 핵심 가치들을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과정의 목표로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틀로서 유용한 지침으로 제공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 참여자

다문화 이해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2018년 2학기부터 연구자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를 섭외하였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섭외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②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소정의 다문화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자.
- ③ 최소 3년 이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의 경력이 있는 자.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를 참여자로 확보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이름	출신국	성별	강의경력	기타
A	몽골	F	4	결혼이민자
B	중국	F	3	결혼이민자
C	중국	F	3	결혼이민자
D	중국	F	4	결혼이민자
E	한국	F	5	배우자감보디아

연구 참여자 모두는 부산교육대학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이중 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했다.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는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과 이중 언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특이하게도 연구 참여자 모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3년 이상 활동하게 되었다. 이는 다문화정책의 주관 부서인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를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의 정책과 부산시교육청

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3.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자는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참관과 인터뷰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수업참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였고, 수업을 참관하기 전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제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참관 이후,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구조화된 질문 없이 연구 참여자들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을 참관하기 전에 수업소개 자료와 수업시간에 사용할 참고 유인물 등을 미리 검토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인터뷰의 녹음자료, 인터뷰의 전사자료, 수업자료, 수업참관 현장노트 등을 포함하였다.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 참관으로 수업목표와 교수방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수업을 마친 후에는 현장에서의 개별 수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사전 인터뷰, 수업참관 및 사후 인터뷰라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중간에 수업참관 후 사후 인터뷰를 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의 자료는 제외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 중에서 인터뷰 녹음자료는 전사되었고 참관 계획안에 따라서 관찰된 참관 노트도 참관 이후에는 분석을 위해서 워드파일로서 재 작성 하였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뷰 자료와 교실 현장에서의 수업참관 기록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여서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의 관점을 반영한 인터뷰 자료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참관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는 주요 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검증자료 근거가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2018년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추계학술

발표 대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회를 가졌다.

## 4. 연구 결과

### 4.1 사전-사후 인터뷰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배우자는 네 명은 한국인 남성, 한 명은 출신국이 캄보디아 남성이었다.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가 된 목적에서 연구 참여자 A씨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인의 편견을 없애고 싶었다고 하는데 다른 참여자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이미지 너무 많아요. 짝퉁,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소수민족들에 대한 차별과 빈부격차만 생각해요.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한국인들의 생각은 별로 바뀌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씨, 사전 인터뷰)

“수업을 하고 나면 정말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같아요. 지금은 초·중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 가서 어른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요. 자라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의 어른들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문화가족들의 자녀들은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 꺼라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E씨, 사전 인터뷰)

“다문화이해 교육은 못사는 나라를 이해해주는 교육이라는 편견이 아이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걸 좀 바꾸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A씨, 사후 인터뷰)

연구 참여자 C씨는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에 대해서 실망

하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싶어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 A씨는 다문화가족이라는 낙인이 그녀와 자녀들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녀들을 위하여 몽골과 몽골 문화를 알리는 측면에서 강사가 되기를 결심했다고 한다. 반면 연구 참여자 D씨는 자신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녀의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다문화라고 하면 영국, 미국 아니면 다 자기들 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요. 사실 남편이 캄보디아 출신이라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학교에서 다문화 수업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E씨, 사전인터뷰)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가 된 이유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한국인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다문화 이해교육의 교수목적과 연계되어 나타났다.

“수업을 통해 몽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것,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 인식이 좋아지는 것이 목표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그런 거.” (연구 참여자 A씨, 사후 인터뷰)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중 관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목표예요.” (연구 참여자 D씨, 사후 인터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대학이나 교육청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였고, 그들이 이수한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실제 자신들의 교수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전 컴퓨터를 잘 못했는데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을 컴퓨터 교육을 통해 기능을 배운 게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컴퓨터 기능을 배우고 익숙해지니까 검색하고 수업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 B씨, 사후 인터뷰)

“저는 강사 직무연수 기간 동안 교수법을 배운 게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교육학을 배운 사람들은 교수법이 쉽지만 나는 교수법이 도움이 되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수업을 하다보니까 아하 그때 그 말이 이 말 이구나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요.” (연구 참여자 E씨, 사전 인터뷰)

이상과 같이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교수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었다.

“교수법은 배웠지만, 초·중학교에 따로 따로 차별화된 교수법이 없어 힘들어요. 가이드라인이 없어 초등학생, 중학생 다 달라 초·중학교에 맞게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데 교수방법을 다르게 배우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E, 사후 인터뷰)

“외국인 강사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어요. 양성과정에서 강의하는 강사의 말이 너무 어렵고 빨라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모두 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중국인 엄마들이 아주 많이 등록했었는데 다 알아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중국인 보조강사가 투입되어 통역을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연구 참여자 C씨, 사전 인터뷰)

교육학에 대한 기초가 없는 참여자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업은 수업자료 작성과 콘텐츠 개발 및 교수방법 이해에는 도움이 되었다. 반면 대상별 차별화된 교수법을 제시해 주지 못

했다는 점과 양성과정을 진행했던 강사들이 언어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 학교별 수업의 내용, 지도방법에 대한 연수가 부족하다는 점들이 지적되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이해 교육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담임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수업하는 것을 꼽았다.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고 포기하는 경우,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요. 담임교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수업을 진행할 때 선생님이 뒤에서 있어 주거나, 수업 중 필요할 때 도와주거나 같이할 때는 아이들이 그러지 않는데...” (연구참여자 E씨, 사전 인터뷰)

“내가 수업할 때 담임교사가 없으면 수업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때 정말 힘들어요. 담임교사의 한국어 지시가 있어야 하고 우리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하나의 교육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학년은 매우 힘들어요.” (연구 참여자 D씨, 사전 인터뷰)

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미 문화·인종적 편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수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다문화하면 못사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다문화 이해수업을 하는데 내용 전달이 참 어려워요." (연구 참여자 A씨, 사후 인터뷰)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수업이 어려워요. 편견이 있어서. 다문화는 불쌍한 사람 혹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내가 힘을 내야지 하면서도 그런 눈빛을 만나면 주눅이 들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대상 수업은 안 하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B씨, 사전 인터뷰)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들은 담임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학생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학생들의 문화적 편견으로 수업진행이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다.

## 4.2 수업참관 연구결과

수업참관을 위해 연구자는 수업을 참관하기 전에 수업지도안을 요청하여 검토한 후 수업을 참관하였다. 수업은 사전에 설계한 학습지도안에 따라 수업 대상자, 교육 내용, 교수 자료, 학습자의 반응 및 교수 환경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관찰되고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참관한 수업은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참가자들도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을 해달라는 의뢰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수업참관은 연구 참여자별로 각 1회씩이었다. 수업은 1회 진행될 때마다 1차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교시에서부터 4교시에 대부분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자신과 관련된 국가(대부분 모국)에 대한 소개와 해당 문화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이었다. 교육 자료로는 전통음식, 전통의상, 간단한 전통노래와 전통놀이 등이었다. 연구 참여자 A씨의 수업은 몽골의 지리적 위치와 간략한 역사를 설명하고 이후, 몽골모자와 전통의상을 체험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 B씨의 수업은 중국만화, 중국노래를 배우고 요요체험과 중국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C씨의 수업은 중국에서도 자신의 고향의 위치와 중국의 음식문화를 간략히 소개하고 중국의 전통의상을 입어보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E씨는 캄보디아 문화를 전통의상과 전통음식으로 소개하고 한국의 전통음식, 전통의상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느 곳이나 같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아동들은 전반부에서 몽골, 중국, 캄보디아에 관한 개관을 진행할 때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수업에 임하였다. 이후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민속놀이 및 민속의상을 체험하면서 즐겁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활동 중심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이라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끝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들의 교수 환경은 다소 열악한 것

으로 관찰되었다.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들은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아니므로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은 1회성(40분씩 1차시)으로 설계되었고 1회성 특별 수업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부산 교육청에서 수업 대상 학교와 학년 학급이 지정되어 체계적인 수업 진행은 편리하였고, 강사는 수업 대상학교에 찾아가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각 학교마다 찾아가서 1차시 분량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일찍 도착할 경우, 머물 공간이 없을 경우도 있고 점심시간 이후 수업이 있는 경우, 식사를 못해서 건너뛰기도 했다. 또한 학교의 컴퓨터 활용이 원활하지 못해 준비해 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매우 안타까움도 표현하였다.

## 5. 논의 및 제언

Bennett(2007)은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이해와 문화적 민감성 함양 및 상호 문화적 역량, 편견 그리고 차별,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감 및 사회적 행위능력에 대한 향상을 다문화 교육과정의 6가지 목표로 보았다. 다문화 이해교육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Bennett의 다문화교육과정 이론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Bennett이 주장한 다문화 교육과정에서 첫 번째 목표인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이해’ 라는 프레임으로 볼 때, 연구 참여자의 다문화 이해교육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생각할 것을 준다고 할 수 있다. 5명의 연구 참여자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고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은 강사의 모국 혹은 강사 배우자의 모국 문화를 이용하여 한국적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더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한 초등학생에게 각각 몽골, 중국, 캄보디아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 Bennett의 세 번째 목표로 설정된 ‘상호 문화적 역량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단위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관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는 다소 부족하며,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배우자를 특정 국가

와 단순하게 연결시키고 있었다. 이는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다문화 교육과정과 핵심가치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할 때 다문화이해 교육 전문가들이 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2. Bennett은 ‘편견 및 차별과의 투쟁’을 다문화 교육과정의 네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다섯 명 모두 한국인의 편견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며, 한국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계 결혼이민자는 중국의 만화, 캐릭터 등의 문화를 중국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몽골계 결혼이민자와 중국계 결혼이민자는 몽골, 중국 문화에서 독특한 문화적 자산임을 알렸다. 연구참여자 E씨도 캄보디아 문화가 자연환경 및 역사를 통해서 합리적 결과물임을 설명하고 편견을 줄이는데 노력하였다.

3.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식주, 풍습위주의 외형적인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rickson(2009)은 ‘보이는 문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과정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를 위해 참관한 다문화 이해수업에서 ‘문화적 민감성 함양’과 ‘상호문화적 역량 배양’이라는 교수 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통의상 등을 통해 해당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4. Bennett은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배양’과 ‘사회적 행위능력 향상’을 다문화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연구자가 참관한 수업에서 세계적 상황을 지구적 연대라는 측면이거나 사회 정의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들이 편견과 투쟁하려는 의지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한국인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지구적 연대감을 느끼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행위를 하도록 지지하기 위해서는 1차시로 구성된 1회성 수업으로

는 학습량, 학습전달의 시간 부족, 상호 이해적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았다. 또한 학교에 소속된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가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기도 쉽지 않다. 더불어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교과 내용과 연계되어 융합하는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기에는 미흡하다.

본 연구의 논의 점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이해교육을 바탕으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학령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찰하기는 다소 부족하다. 때문에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중등과정까지 이루어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연구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수업에 참관하였고, 강사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다문화 이해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학교의 요구를 고찰시키거나 외부강사에 의한 다문화 수업을 학교 교육과정과 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외국인노동자 및 유학생의 유입 등으로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이해교육은 다음 세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통합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전지구화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배양될 때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점차 줄어들고 건강한 사회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기정(2012). 다문화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권 2호, 한국가족복지학회. 153쪽~168쪽.
- 권오현(2012).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의 바람직한 방향 탐색, <다문화교육 연구와 실천> 4권,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1쪽~20쪽.
- 국가인권위원회(2009). 인권관점에서 다문화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교육부(2018). 교육기본통계자료.
- 여성가족부(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 행정자치부(2017). 2017년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결과 발표.
- 홍영라·방기혁(2015). 초등학교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한국실천예술교육학> 21권 3호, 한국실천예술교육학회지. 95쪽~114쪽.
- C. Bennett(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6th edition). Boston: Pearson.
- C. E. Sleeter(2006). C. Grant, "다문화 교육: 인종, 계급, 그리고 성", 뉴욕: Wile
- J. A. Banks(2008). 다문화에 대한 소개교육 (4판), 워싱턴 대학교.
- Erikson,E.H.(2009). Identity,youthandcrisis.NY:Norton.
- 다누리배움터 <https://www.danurischool.kr/login.do>

### 필자 소개

성 명 : 김 태 이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전자우편 : [6503kyy@naver.com](mailto:6503kyy@naver.com)

투고일: 2019. 1. 25 / 심사일: 2019. 2. 3 / 심사완료일: 2019. 2. 15